



두번째 이야기

[2019 Kenya Outreach 후기]

수고와 헌신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엘도랏에 도착해 조문상 선교사님을 비롯한 동아프리카 선교사님 일행 5분과 함께 서북부 이텐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부터 이텐, 캅카르와, 우간다 음발레로, 다시 케냐 나시옹고로 이동하며 4개 지역에서 열리는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총 이동거리는 약 1,100 km, 총 졸업생 수는 150명, 이들 가운데 22개 과목을 들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DBS졸업장을 66명이나 받았다.



[정주영, 김찬주, 정희선]

이번 아웃리치 참가인원은 3명으로 소수의 가녀린(?) 자매들이라보니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돌봄과 사랑을 받았다. 에어컨 없이 달리는 현지 봉고차 대신 에어컨이 잘 나오는 선교사님들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 맛있는 현지 과일과 음식도 먹어볼 수 있었다. 특히 구정(2월 5일)날에 키수무에 사시는 윤경환 선교사님 댁에서 손수 준비해 주신 갈비찜, 녹두전, 떡국, 잡채 등으로 설 명절을 보냈는데 매일 강행군을 하시며 힘드셨던 선교사님들도 이 날은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다.

한 번의 졸업식이 있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이 흘러야 했다. 선교사님들이 세미나 인도는 물론 과목별 성적처리, 일정과 장소 세팅 및 졸업장과 졸업가운 준비, 당일 리허설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다. 특히 케냐에서 우간다로 넘어가는 과정은 먼 길을 달려서 국경에 도착하고 또 비자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길을 세미나를 위해 혼자서 몇 번이나 왕복하셨을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마음에 진하게 와 닿았다.

우간다 음발레 졸업식에서 현지 교회의 리더 목사이신 졸업생 올랄라(Orlala) 목사님은 “BEE는 진짜이다. BEE를 통해 자신과 교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우간다를 넘어 아프리카 전체에 BEE 프로그램을 전하고 싶다 ”고 힘찬 목소리로 간증하였다.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케냐 아웃리치를 통해 더욱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제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시작된 BEE는 우간다, 남수단,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등 주변 나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이 느껴진다. 케냐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퍼즐의 각 조각이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 잘 자리잡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리시는 이 큰 퍼즐은 언젠가 멋지게 완성될 것이다.

주님,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케냐 나시옹고 졸업식: 53명 졸업



우간다 음발레 졸업식: 41명 졸업

[글쓴이: 김찬주 권사]

BEE는 2004년 로마서를 잘 배울 수 있다는 지인의 소개로 시작했고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바로 BEE에 매료되었고 2007년부터 FT로 섬겼다. 현재 온누리 교회 권사이자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말씀이 삶의 실체가 되어가다!

지난 가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수강할 때 인도자님께서 케냐 아웃리치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백하자면 평생 아프리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인도자님의 권유로 결국 신청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교회 간사를 그만두고,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돌아가는 시점이었는데, 정원만 전도사님이 최고의 아웃리치 일정이 될 거라고 추천하셨고 순장님은 영육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응원하셨다. 그분들의 말씀대로 매일 매일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영육의 쉼을 누리는 최고의 아웃리치 일정이 되었다.



2월 3일 주일예배와 졸업식을 위해 갔던 이텐 교회에서 졸업생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과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마치 대학교나 대학원 학위를 받는 것과 같이 기뻐했다. 첫 졸업식 뿐 아니라 우간다 포함 우리 팀이 참석한 4번의 졸업식이 다 같은 느낌이었다. 주영자매가 케냐 출발 전 천국잔치에 초대된 것 같다는 고백을 하였는데 정말 천국 잔치가 눈앞에 펼쳐진 시간이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이들에게 BEE 졸업의 의미가 무엇 일까 혼자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2012년 BEE를 공부할 때만 해도 BEE가 선교단체라는 걸 모르고 시작했었다. 단지 성경 세미나를 주관하는 기관인 줄로만 알고 수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케냐에서 졸업식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수료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누리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BEE의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거리에 상관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회자님들의 사명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이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말씀으로 인해 동아프리카가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되길 기도한다.

모든 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 모든 풍경과 음식과 사람이 너무 좋다고 매일 매일 말씀하셨던 조문상 선교사님, 어려울 때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No problem'을 말씀하시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셨던 박은형 선교사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한다고 칭찬으로 격려해주신 윤경환 선교사님, 나이로비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고 배웅해주시는 신동준 선교사님, 조용하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시는 권태남 선교사님, 열심히 협력하시는 현지인 사역자님들,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신 김찬주 권사님, 순수함으로 팀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정주영 자매, 모두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아웃리치였다.



[글쓴이: 정희선]

터키에서 1년 단기선교를 하며 인생의 Turning Point를 맞이했고 2012년 차비아를 시작하면서 BEE 과목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었으나 BEE 아웃리치는 이번 케냐가 처음이었다. 현재 온누리 교회 성도이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BEE의 보석 찾기

02. 광명손 자매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삶 자체가 사역이고 예배여야겠죠. BEE는 2009년경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과정 중 청년BEE를 개설해서 4명의 자매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김소현 멘토님(당시 요셉 공동체 청년부 멘토)께서, 로마서와 그생을 정진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BEE에서 인도네시아와 미국 LA로 세미나 진행 위해 아웃리치를 갔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라고 하셔서 FTS까지 했는데 온비아로 체계가 바뀌면서 곁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지금도 BEE 기도테이블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지체들이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란 말씀대로 사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과정에 BEE가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어렵겠죠? 더 많은 청년들이 BEE에 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어머니와 기혼 여동생, 미혼 남동생 가족 모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02.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정확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단호함과 애정 어린 눈빛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입니다. 세미나마다 사이다 같이 시원하고 명쾌한 인도로 학생들을 집중케 하는 집사님이죠! 두리번 두리번~~ 바로 옆에 계십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말씀을 행하라'의 3월 성품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겸손하고 신실하게 양보하며,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진실되게 행하는 한 주간되기를 기도합니다.
2.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FTS만을 위하여 방문하신 전수열 집사님과 임선희 집사님의 파송식(3.9)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두 부부 집사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비다부 땅을 축복합니다.
3. 2019 상반기 온비아 수련회가 4월 27일(토)에 있습니다. 역사의 고장인 강화지역의 성지를 탐방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 ▶ 동아프리카 테이블 이춘호 목사님께서 '하늘빛교회(인천 서구연희동)' 설립 예배를 3월 9일에 드렸습니다. 교회의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빛 교회를 축복합니다!!



▶ 미주 테이블에서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3월 2일(토)에 '운동주 문학관'과 '서울 역사 박물관(기획유물특별전 : 딜쿠사와 호박 목걸이)'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의미 있는 나들이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시로써 일제에 저항한 '운동주' 시인과 '독립선언서'와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전하여 조선의 독립에 큰 영향을 준 '알버트 테일러' 이야기를 통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